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보스턴 연준 총재, “인플레 계속 둔화시 ‘곧’ 금리 인하”
- WSJ: 미 경제 전환점에 도달할 것인가?
- Bloomberg: 이코노미스트들, “9월 큰 폭 금리 인하 없다” 예상

[미국 금융]

- CNBC: 10년물 국채 금리, 일자리 보고서 후에 인하
- WSJ: '모기지율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미국 대선]

- CNBC: 트럼프, “연준 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 CNBC: 트럼프와 해리스, 9월 10일 ABC 토론 합의.... 두차례 더 논의 중

[미국 생활]

- Bloomberg: 뉴욕 등 곳곳에서 이민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 운영

[중국 경제]

- WSJ: 중국 7월 소비자물가 0.5% 상승, 수요 부진 우려 여전해

[부동산]

- WSJ: 모기지 금리,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기업들, 금리 인하 대비해 단기 채권 발행 늘려
- CNBC: JP 모건 체이스, 생성형 AI 지원도구 도입
- CNBC: 애플,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에 월 20달러 부과 가능성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Collins Sees Rate Cuts ‘Soon’ If Inflation Keeps Slowing

보스턴 연준 총재, “인플레 계속 둔화시 ‘곧’ 금리 인하”

- 보스턴 연준 총재인 Susan Collins는 “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인플레가 계속 둔화될 경우에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Providence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그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데이터가 계속 진행된다면 연준이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해 정책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그는 금리가 향후 수년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속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연준 다음 정례 회의는 9월 17일부터 양일간이다.

Bloomberg 기사

WSJ: Has the U.S. Economy Reached a Tipping Point? 미 경제 전환점에 도달할 것인가?

- 인플레이션 인하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상황에서 미 경제가 변곡점에 도달할 것인가? 최근까지 미 경제는 소프트 랜딩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수주간의 상황들은 그렇지 않고 일부 전문가들은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연준이 이를 막기 위해 서둘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모든 소비자들과 기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즈니를 비롯한 Airbnb, McDonald, Trex 등 여러 업종의 기업들은 소비 수요의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 Piper Sandler의 선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Nancy Lazar는 “중산층 소비자들의 심리가 침체 국면에 있고 고소득 수요자들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WSJ 기사

Bloomberg: Fed Seen Rejecting Calls for Jumbo Rate Cut in Economist Survey 이코노미스트들, “9월 큰 폭 금리 인하 없다”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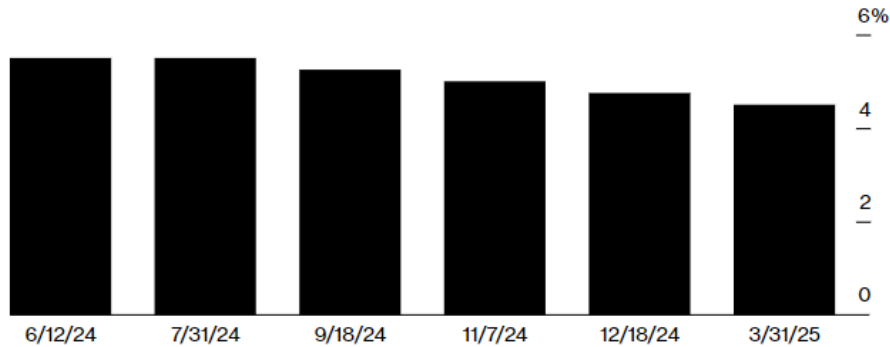
-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9월 이전에 긴급 금리 인하가 없을뿐더러 9월에 큰 폭의 금리 인상도 없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월가 은행의 큰 폭 금리 인하 전망과 다른 예측이다.

- 답변자들 중 거의 4분의 3은 연준이 9월 17일 양일간의 회의에서 금리를 5%~5.25% 범위로 낮출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 이코노미스트들 대부분은 오는 9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첫 분기에 각각 0.25%의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은 9월 6일부터 8일간 51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했다.

Gradual Fed Interest Rate Cuts Seen By Economists

Quarter-point moves expected for next three meetings and in early 2025



Source: Bloomberg News survey of economists August 6-8
Note: Economists were asked to forecast the upper bound of the federal funds rate for the next three meetings and in early 2025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BC: 10-year Treasury yield dips as traders weigh state of U.S. economy after latest data

10년물 국채 금리, 일자리 보고서 후에 인하

- 최근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미 경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는 금요일 하향 중이다.
- 10년물 국채는 6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3.936%로 거래 중이며 2년물은 2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024%를 기록 중이다.
- 한편 트레이더들은 9월에 연준이 0.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을 줄였으며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0.25%로 인하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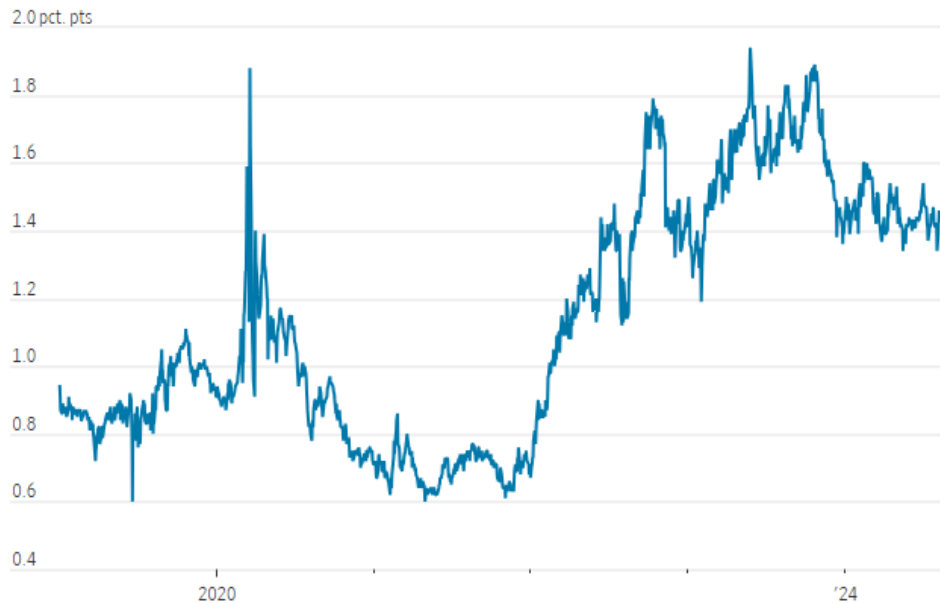
CNBC 기사

WSJ: Don't Bet on a Rapid Drop in Mortgage Rates 모기지율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 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는 지난주에 0.25% 포인트 줄어든 6.47%를 기록해 15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그러나 이번 주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반등하는 가운데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주간 모기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 주요 벤치마크 모기지 채권의 스프레드(국채 수익률에 대해 채권이 지불하는 금액)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모기지율은 과거 비슷한 수준의 국채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Mind the Gap

Spread between benchmark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current coupon and Treasury yields



Source: Bank of America

WSJ 기사

[미국 대선]

CNBC: Trump says he should get a say on Federal Reserve interest rate decisions

트럼프, “연준 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 대선에 출마 중인 트럼프 공화당 지명자는 목요일 “연준의 정책 결정이나 금리 결정 시 본인은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대통령을 재임 시에 자신이 2018년에 지명한 연준의 파월 의장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CNBC 기사

CNBC: Trump and Harris agree to Sept. 10 debate on ABC, two more dates in the works

트럼프와 해리스, 9월 10일 ABC 토론 합의.... 두차례 더 논의 중

- 트럼프와 해리스는 적어도 한차례의 토론에 합의했다, 양측은 9월 10일 ABC 뉴스의 진행에 따른 토론에 동의했다.
- 그리고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9월 4일 폭스 뉴스가 진행하는 토론회와 그리고 9월 25일 NBC뉴스가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 해리스는 “추가적인 토론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9월 10일 ABC 토론 이후도 좋다”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양측이 합의를 본 토론회는 ABC가 진행하는 9월 10일 토론회다.

CNBC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From New York to Denver, US Cities Are Seeking Migrants for Jobs

뉴욕 등 곳곳에서 이민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 운영

- 덴버에서 17개의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마크 버진스(Mark Berzins)는 주방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덴버는 전국 평균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주로 고학력 인구가 많아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고용주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요리사나 설거지 담당자를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버진스는 연방 취업 허가를 받은 망명 신청자(주로 중남미 출신)를 고용하기 위해 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관리자가 있는 주방에 약 12명을 고용했다. 버진스는 “덴버의 거의 모든 주방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덴버와 뉴욕과 노스다코타에 이르는 여러 지역의 이같은 고용 프로그램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유급 일자리를 원하는 이민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와 주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 Consumer Inflation Rises, Factory-Gate Prices Continue to Fall**중국 7월 소비자물가 0.5% 상승, 수요 부진 우려 여전해**

-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지만,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WSJ가 실시한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에서 예상한 0.4% 상승을 소폭 웃돌았으며, 6월의 0.2% 상승과 비교된다.
- 금요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공장 출고 가격은 6월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이며 디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했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해 22개월 연속 위축세를 기록했다. WSJ 설문조사에서는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은 과잉 산업 생산능력을 초래하여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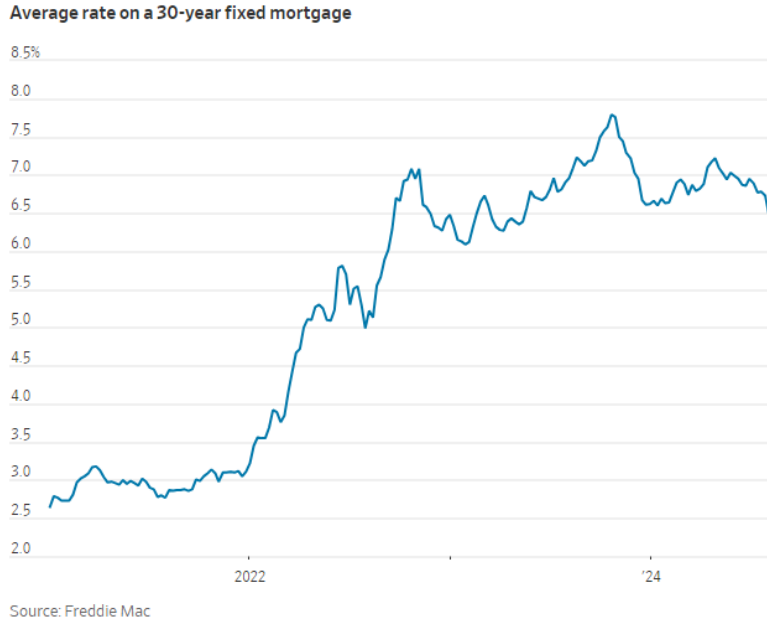
WSJ 기사

[부동산]

WSJ: Mortgage Rates Drop to 15-Month Low**모기지 금리,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 모기지 금리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미국 최대 모기지 대출 기관인 프레디 맥(Freddie Mac)이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표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약 0.25% 포인트 하락한 6.4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약 9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 폭을 기록한 것이다.
- 이러한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최근 몇 년간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났던 일부 미국인들이 다시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주택 판매량은 거의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Finance Chiefs Lean on Commercial Paper to Trim Costs, Prepare for Rate Cuts

기업들, 금리 인하 대비해 단기 채권 발행 늘려

- 기업의 재무 책임자들은 이자 비용을 줄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단기 채권은 금리 하락의 혜택을 빠르게 누릴 수 있어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 기업어음(CP)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일에서 수개월) 기업들은 이를 자주 재발행할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 더 낮은 비용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어음은 은행 대출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대안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기업들은 운전자금 조달, 현금 흐름의 계절적 요인 극복, 장기 자본 조달을 위한 가교 역할 등을 위해 기업어음을 활용한다. 특히 이번 주 회사채 발행은 월요일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
- 기업어음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회사채 발행 급증으로 급락한 이후, 대체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미연준에 따르면 8월 7일 기준 비금융 기업의 국내 기업어음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2,387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WSJ 기사

CNBC: JPMorgan Chase is giving its employees an AI assistant powered by ChatGPT maker OpenAI**JP 모건 체이스, 생성형 AI 지원도구 도입**

- JP모건 체이스는 최근 수만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비서 역할을 하는 LLM Suite를 배포했다. 이는 금융계 전반에 해당 기술을 도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 LLM Suite은 이미 6만 명 이상의 직원이 이메일 및 보고서 작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은행 내에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과 같이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JP모건은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사용자가 외부의 대규모 언어 모델(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기반이 되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포털로 LLM Suite를 설계하고, ChatGPT 제조업체인 OpenAI의 LLM을 통해 이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 JP모건의 데이터 분석 책임자인 Teresa Heitsenrether는 “상황에 따라 모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원한다”며 “우리는 모델 제공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CNBC: Apple could charge up to \$20 for some Apple Intelligence AI features, analysts say**애플,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에 월 20달러 부과 가능성**

- 애플은 수익성 높은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급 인공지능(AI) 기능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최대 2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CNBC에 전했다.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이 거대 기업은 올해 말 일부 기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라는 AI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다.
- 애플은 지난 6월 AI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개선된 Siri 음성 비서와 이메일 및 이미지 자동 생성 기능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기능이 천천히 출시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중국과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애플이 고급 앱에 대해 구독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Neil Shah는 “AI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플은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애플이 애플 One 구독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애플

One은 월 19.95달러로, 사용자에게 애플 뮤직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을 제공한다.

CNBC 기사

연준, 美연착륙 여전히 성공가능할까...경제지표·잭슨홀 주목

22~24일 잭슨홀 회의서 파월 연설...고용·CPI 지표도 금리 결정에 영향 NYT "금리 인하 너무 오래 기다려...불시착 위험"

미국 실업률 상승에 따른 침체 우려 등으로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무사히 끝내고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성장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인플레이션까지 진정되면서 연착륙 기대가 컸지만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로 인해 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라고 8일(현지시간)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평온하게 식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래 기다림으로써 더 고통스러운 불시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